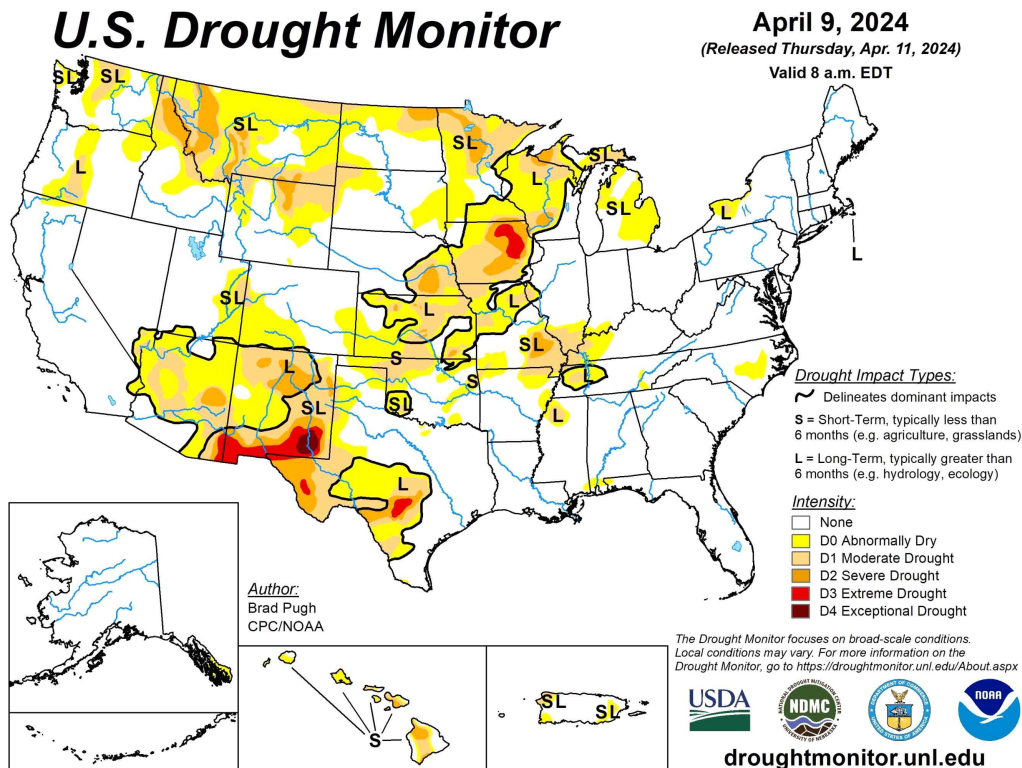


4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16)

□ 미국 기후 현황(4/7-4/13)

흙백 젖는 비가 남부, 동부 그리고 중서부 아래쪽의 대부분에 걸쳐 내려서 국지성 홍수를 일으켰고 야외 작업을 중단시켰지만 목초지, 겨울 곡물들 그리고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풍부하게 유지했다. 주간 총강수량은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미시시피 삼각주까지 4-8인치 이상이었고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지역 하부의 대부분에는 2-4인치였다. 의미 있는 강수가, 북부 및 남부 평원의 일부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들로 확대되어 방목지, 목초지, 겨울곡물들 및 새로 심은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강수가 중앙평원은 우회하였기 때문에 국내 주요 겨울밀 생산 지역들 가운데 한 곳인 이곳에 가뭄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주 후반에 태평양 연안 근처의 폭풍우 하나가 남쪽으로 표류하다가 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 내륙으로 향했다. 그 외에 미국 서부 대부분은 며칠 동안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북부 평원, 중서부, 미시시피 계곡 그리고 북동부의 넓은 구역들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미국 북쪽 국경 지대의 몇몇 지점들에서는 평균 기온 수치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남캘리포니아와 남서부의 일부는 평년보다 서늘한 상태였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서는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5° F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4/8-4/14)

중서부 위쪽, 태평양 북서부, 중앙평원, 로키산맥 그리고 남서부 대부분에서는, 남플로리다와 대서양 연안 중부 대부분은 물론이고, 평년보다 건조한 조건이 만연했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북동부, 오하이오 계곡, 남부 평원 그리고 남부의 넓은 구역들은, 이에 더하여 오대호, 오레곤 중부, 북부 평원까지 포함하여, 평년보다 최소 두 배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동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몇몇 소재지들은 총 8인치 이상의 주간 강우량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오대호 일부, 중서부 북부, 뉴욕 주 북부 그리고 북부 평원의 일부는 평년보다 9° F 이상 높은 주간 기온을 기록했다. 반대로 남동부와 남서부 일부는 평년보다 다소 시원했다. 뉴멕시코의 몇몇 소재지들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4/1-4/13)

##### ■ 유럽:

유럽 대부분에서 이례적인 따뜻함이 지속되었고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린 서부 및 북부 재배 지역과 건조함과 가뭄이 발달하고 있는 남동부는 서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2주 연속하여 기온이 서유럽에서는 평년보다 평균 2-5° C 높았고, 유럽 대륙의 동쪽 절반에서는 평년보다 5-9° C 높았다. 마찬가지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0도 후반과 30도 초반까지 올라가 서부, 중부, 남부 재배 지역들에서 새로운 일별 및 월별 기록을 세웠다. 날씨가 평년보다 지속적으로 더 따뜻하여서 서부 및 남부 경작지 전반에 걸쳐서 겨울곡물과 유지작물들이 평균 대비 2-4주 앞당겨 생식기를 지나고 있고 폴란드에서부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까지 겨울 유채는 이미 개화 중이다. 결과적으로, 겨울 작물들은 특히 계절 후반에 혹독한 추위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에 가뭄거나 적당한 소나기 (2-20 mm, 영국 북부와 이탈리아 북서부에는 국지적으로 30 mm 이상)가 내려서 토양은 적당하거나 과도하게 습한 상태를 유지했다. 유럽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의 하늘은 다시 맑아져서 야외 작업과 겨울작물의 발달에 유리해졌다. 발칸반도 전역의 날씨는 건조하고 아주 따뜻해져서 토양 수분의 소실량이 높아졌고 단기 건조를 악화시켰다; 헝가리의 헝가리 평야에서부터 세르비아 북부까지, 루마니아 왈라키아 평원에, 그리고 불가리아 북동부와 루마니아 남동부의 경작지에서 심각한 결핍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25 퍼센트 미만)이 발달했다.



■ 구소련(서부):

아주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 작물의 발달과 계절 야외 작업이 가속화되었고 이 지역의 최북단 및 최동단 일부에서만 강우가 측정되었다. 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5-10° C 높았고 겨울 작물의 성장을 가속화했으나 중남부 채배 지역들에서는 토양 수분의 손실을 높였다. 소나기 (2-1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는 벨로루시 북부 일부와 러시아, 이에 더하여 불가 지방 동부로 한정되었다. 습한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토양 수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에서는 급성 단기 건조가 발달했다; 60일 총강우량은 평년의 50 퍼센트 미만이었고 남부는 양이 25 퍼센트 미만이었다. 서쪽에서는 영양기 겨울밀, 보리 그리고 유채가 평년보다 2-3주 앞서 그리고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1-2 주 앞서 발달하고 있었다. 그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도 봄 곡물과 여름작물의 파종이 빠른 속도로 되도록 촉진했다.

■ 동아시아:

해당 주간 남중국에서는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여러 소재지에서 강우량이 50 mm를 넘어갔다. 그 수분은 장강 계곡에서 개화 중인 유채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남서부 성들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갔던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더위 (기온이 40° C에 육박)를 붙잡아 두었다. 더욱이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또한 소나기들 (10-25 mm)이 화북 평원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후기 영양기에 있는 밀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밖에 북동쪽에서는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기온 (평년보다 6° C 높은) 덕분에 옥수수과 대두를 조금 일찍 파종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서중국은 날씨가 면화 파종을 지지해줄 만큼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다.

■ 호주:

동호주에서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25 mm)가 지역의 면화, 수수 그리고 기타 여름작물의 수확을 지연시켰지만 지연 시간들은 모두 짧았던 것 같다. 그 비가 그 지역 내 토양 수분을 평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농민들이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파종을 시작하도록 장려했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은 소나기가 남부와 서부에서 더 약하고 (1-10 mm)고 더 넓게 흩어져 내렸다. 그런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는 밀과 캐놀라의 초기 파종 등의 야외 작업에 유리했다. 그러나 서호주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리면 반가울 것이다. 이곳의 어떤 지역들에서는 표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밀 지대 대부분에서 기온은 계절에 맞지 않게 서늘하여 평년보다 평균 2-4°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초중반이었다. 예외는 서호주의 밀 지대 북쪽 일부였는데 이곳의 최고 기온은 30° C 가까이 올라갔다.

**■ 아르헨티나:**

온화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국지적으로 과도한 습기가 야외 작업을 느리게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늦게 발달하는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다. 폭우(50-150 mm, 국지적으로 더 높음)가 북부 대부분을 덮었고 코르도바 중앙 구역처럼 먼 남쪽까지 확장되었다. 그 풍부한 수분이 다가오는 겨울곡물 철을 위한 토양 수분을 다시 채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성숙중인 작물들, 특히 면화에게는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더 남쪽에는 대부분 보다 가벼운 소나기(25 mm 이하)가 내려서 야외 작업을 지원했고 두 번째 작물인 대두를 포함하여 나중에 심은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3°C 낮음)가 전국 대부분을 지배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후학적으로 더 선선한 소재지들에서는 야간 저온이 5°C 미만으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4월 11일 현재 97 퍼센트 수확되었고(작년은 84 퍼센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에서는 각각 96 및 99 퍼센트 수확이 완료되었다. 한편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19 및 10 퍼센트 수확되었고 면화는 8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동부에서는 온화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만연했고 계절적인 냉각이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의 수분 요구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강우량은 대체로 약했고 소면적의 건조 구역들(10 mm 미만의 강우량)이 산타카타리나와 마투그로수두술 남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미나스제라이스를 거쳐 뻗어갔다; 한편 히우그란지두술과 상파울루 둘 다의 서부 농경 지역들에는 더 많은 비(25-50 mm)가 내렸다. 주간 평균 기온은, 계절적인 냉각 때문에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20도 후반과 30도 초반이기는 했지만, 평년보다 3°C 낮은 수준(히우그란지두술 남부)에서 평년보다 2°C 높은 수준(더 북쪽)까지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4월 8일 현재 파라나에서 2기작 옥수수의 약 60 퍼센트가 개화 내지 종실비대기였고 1기작 옥수수(95 퍼센트)와 대두(97 퍼센트)의 수확은 거의 완료 중이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4월 11일 현재 대두의 38 퍼센트가 수확되었고 이 작물의 또 다른 큰 부분(42 퍼센트)은 성숙하고 있었다; 한편 옥수수는 77 퍼센트 수확되었다. 더 북쪽에는 보통 내지 강한 소나기(25-100 mm)가 내려서 주요 중부 및 북동부 생산 지역에 있는 옥수수와 면화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다. 북부에 내린 그 비는 우기가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2차 작물을 위한 수분 보유량의 중요한 상승을 이끌어내었다.